

광산구, 민생경제 회복 위해 역량 집중

구청장 직속 '민생안정 살핌 지원단' 구성, 종합지원 체계 구축 일자리·복지 등 10대 중점 과제 추진...시민 체감 민생지원 총력

광주 광산구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2일 광산구에 따르면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특별지시로 지난 1월부터 전 부서에서 발굴한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기구를 운영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는 게 목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년보다 낮은 1.6%로 전망하는 등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앞선 데 달친 격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전례 없는 민생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경각심이 밑바탕이 됐다.

광산구는 지난 9일 45개 전제 부서가 마련한 정책을 공유하고, 이를 계층별, 분야별 종합대책을 확정했으며, 광산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위기 극복 민생안정 살핌 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광산구가 추진하는 종합대책은 '든든한 경제 생태계 조성', '두텁고 촘촘한 복지 강화'를 두 축으로

10대 중점 분야·과제로 구성됐다.

경제 분야는 크게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 기업, 노동자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

전국 최초 참여소득 일자리 모델인 광산시민수당을 기존 공공시민형에서 민간시민형까지 확대해 1만3000개의 사회공헌 일자리를 창출하고, 통합돌봄 공익형 일자리, 장애인 맞춤 일자리, 자활사업단을 연계한 취약계층 일자리 등 '틈새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역금융기관과 연대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청 구내식당 휴무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세기업·산단 입주기업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직접 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활력다방' 등도 운영한다.

도시가스, 전기료 인상 등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난방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이날부터 연 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 접수에 들어갔으며, 예년

지위기가구,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한부모, 기초보장가구, 긴급복지대상 가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긴급지원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불평등, 양극화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 그물망도 더 넓게, 더 촘촘하게 펼친다.

이웃 지기 1명이 위기가구 3세대를 돌보고, 위기가구 1세대를 위해 이웃단짝 3명이 함께 하는 '1313 이웃살핌 동아리'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한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외국인주민을 위한 긴급생계지원, 문화예술인 공연 기회 확대, 농가 경영안정지원, 홀몸 어르신을 위한 '천원 이발소' 운영,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지대 조성, 취약계층 어린이,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지원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지원단과 함께 국·과·소별로도 경제위기 극복 위기 TF를 운영하고, 정책 실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누적된 수많은 민원과 현안 대응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광산구 공직자 모두가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민생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 함께 잘 사는 상생의 가치를 중시에 두고,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더 나은 주거복지 실현 '사랑의 집 고쳐주기'

광주도시공사, 저소득 독거노인 3세대 방문 개보수공사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3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광주도시공사는 저소득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광산구 소재 노후주택 3세대를 방문해 도배·장판 교체 등 개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민근 사장 등 임직원 20여명과 박수기 광주시의원이 봉사자로 참여했다.

도시공사는 2010년부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추진해 총 65가구를 지원했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근 사장은 "이번 행사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 이웃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도울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완센트럴병원, '지역 인재' 키운다

성적 우수 고등학생 4명에 장학금...매년 계획



수완센트럴병원은 최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관내 4개 고교(장덕고, 수완고, 성덕고, 명진고) 성적 우수자 4명에게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소재한 수완센트럴병원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관내 4개 고교(장덕고, 수완고, 성덕고, 명진고) 성적 우수자 4명에게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수완센트럴병원은 이번 장학금을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장학금 지급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완센트럴병원 고길석 대표원장은 "장학금을 받게되는 학생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남다른 지역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종합병원 승격을 앞두고 있는 수완센트럴병원은 신경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을 증설할 계획이며, AI기능을 탑재한 CT 장비와 폐질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3월부터 고관절 명의인 이상홍 원장(제21대 조선대학교 병원장)이 진료료 맡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행복나루노인복지관-치우치과 구강관리 교육·검진 전담 협약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행복나루노인복지관(이사장 신선호)과 치우치과네트워크(대표원장 진세식)은 지난 17일 지역사회 고령시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복지관 김경옥 관장, 치우치과네트워크 진세식 대표원장, 치우치과 광주수완점 박정호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고령시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 및 검진 등을 하고, 진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로 찾아가는 치과진료 운영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노년기에 중요한 구강관리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고령시민은 물론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 살고 있는 시민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의료연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이음번호0420' 장애인과 문자로 소통

언어·청각 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운 장애인 전용 민원 창구

광산구가 언어·청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문자로 소통할 수 있는 전용 민원창구를 운영한다.

창구 이름은 '이음번호0420'이다.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의 숫자를 따 010-3234-0420 번호로 광산구 장애인복지과 문자 전용 회선을 개설했다. 언어·청각 장애인이 직접 문자 메시지로 다양한 생활 불편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광산구는 문자로 접수된 불편 민원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답변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소통 창구가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지역

언어·청각 장애인 690명에게 문자 안내하고, 동행복지센터와 농아인센터, 복지기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엔 마련된 문자 소통 창구는 '광산구청장 직통 모바일 문자서비스'로 접수된 한 장애인의 호소로 이뤄졌다.

문자 소통 창구를 제안했다는 박정웅씨는 "구청장에게 문자로 제안한 민원이 실제로 반영돼 놀랍고, 감사하다"면서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장애인 정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자로 알 수 있게 되는 등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 난방비 10만원 특별지원

광주 광산구는 "한파와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난방비 10만 원을 특별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이날 기준 광산구에서 사업중인 2022년도 연 매출 2억 원 미만(부가세 포함) 임차 소상공인이다.

이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우편(simin1@korea.kr)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광산구 시민경제과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

다. 지원금은 신청 후 2주간 조사를 통해 3월 9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로 악화한 경제 상황에 난방비까지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임차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특별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